

선교 지도자들, 다음세대 선교동원 방안 논의한다

2024 KWMF 선교대회, 24~27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한인세계선교사회(KWMF)가 24일부터 27일까지 천안 소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차세대 선교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선 최근 교회 내 청년들의 숫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외 선교의 장으로 이끌어낼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대회 운영위원들은 각 나라 선교 현장의 사역 준비성, 체계화, 전문적 데이터 등의 부족에 따라 선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24일 첫째 날 대회는 개회예배로 시작했다. 개회예배는 이성호 공동회장의 사회, 김기주 부회장의 기도, 토보찬양팀의 찬양, 방도호 KWMF 대표회장의 기조연설, 이근희 KWMF 사무총장의 환영사, 강대홍 KWMA 사무총장의 축사, 최승락 고려신학대학원장의 설교, 안준호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방도호 대표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사실 오늘날 각 국가 현장 사역의 준비성, 체계화, 전문적 데이터, 집약적 사역 등이 다음 세대 선교와 이어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선교 현장의 연속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어 상당히 긴장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다음 세대가 하루라도 빨리 선교

현장을 이양받는 것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현장 선교사들의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즉 청년 대학생 및 신대원생들이 보람된 선교사로서 재할용해 현지인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는 강력한 요청에 따라 현장 선교사들과 함께 한국 국내 교계 지도자들과 다음 세대 선교 동원을 위해 이번 선교대회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KWMF는 이번 대회에서 현장 선교사들과 교계 및 관련 단체 등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사 후보생을 준비 점검하고 각 선교지 이양에 대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가올 미래에 사역의 주체들인 다음 세대가 세계선교사의 꿈을 꾸게 하고, 시너저 선교사는 효과적인 선교 이양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해 주며, 이 분야에 책임감을 가진 선교사 파송 기관의 리더들에게는 생각의 전환을 기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이근희 KWMF 이근희 사무총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1977년 창립된 KWMF는 올해로 47년째 역사를 갖게 됐다. 현재 전 세계 169개국에서 선교사 2만 3천명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교회 개척을 비롯해 신학교육과 각 사회적 문화사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고



KWMF 선교대회 개회예배 모습. ©노형구 기자

있다"며 "1970년 초반 한국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괄목할 만큼 많은 사역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내고자 하는 인력과 나가고자 하는 헌신자들이 갈수록 심각하게 줄고 있다"며 "이번에 개최하는 선교대회에서 한국교회 및 파송단체가 해답을 찾게 되는 창조적인 대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 했다.

이어 강대홍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은 "이 시대는 다음세대라 부르는 젊은이들의 헌신이 아주 귀하다"며 "현장 선교사들이 그 필요성을

바라보며 젊은이 동원을 위해 열리는 이번대회는 그 의미가 더욱 귀하다"고 했다.

그는 "세계 선교는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했다. 영국 선교는 케임브리지 대학 7인의 기도 운동, 미국의 선교운동은 윌리엄 대학(William College)에서 일어난 Haystack Prayer Meeting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무지가 지원한 학생 자원봉사 운동에서 그 열매들이 나타났다"며 "당시 교회의 어른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학생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학생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캠퍼스의 기도가 이제는 먼 얘기로 들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라며 "캠퍼스의 기도 동아리가 학생 20명을 채우지 못해 동아리 교실을 배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동원을 위해 학생단체,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의 결집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강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의 귀한 강사들의 메시지, 현장의 간증을 통해 젊은 이들의 마음을 불사르게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천안 대회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한국의 2024 에스베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승락 원장은 이날 전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획득물-하나님의 특택(에베소서 1장 13-19절)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별 불일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때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느끼는 순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른다"며 "이 사역은 한 개인을 온전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한 민족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다"고 했다.

그는 "선교와 복음 사역의 일선에서 말기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함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로운 소유로, 그의 기쁨의 특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의 막강한 능력으로 약한 우리를 불드실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굳세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이날 저녁집회는 강형민 공동회장의

사회, 지성구 부회장의 기도, MK 정유니 학생단체,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의 결집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강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의 귀한 강사들의 메시지, 현장의 간증을 통해 젊은 이들의 마음을 불사르게 되길 바란다"며 "이번 천안 대회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한국의 2024 에스베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최승락 원장은 이날 전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획득물-하나님의 특택(에베소서 1장 13-19절)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별 불일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때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대해 그렇게 느끼는 순간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보신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른다"며 "이 사역은 한 개인을 온전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한 민족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학생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캠퍼스의 기도가 이제는 먼 얘기로 들리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라며 "캠퍼스의 기도 동아리가 학생 20명을 채우지 못해 동아리 교실을 배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동원을 위해 학생단체, 교회 그리고 사역자들의 결집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 같다"고 했다.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안 가결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
교육감, 재가결 후 20일 이내 대법원 제소 가능

충남도의회가 24일 제351회 임시회

“AI, 문명 이기로 선용
되 비판적 성찰해야” >> 4면

김준희 “피아노로
노래하기가 어려워요” >> 22면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가결했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표결을 한 것은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다. 박정식(아산3)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처음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충남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올해 2월 재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통과 기준인 찬성 29명을 넘

지 못해 부결됐다. 재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도의회에서 재석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재가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폐지안이 다시 가결되자 충남 교육감이 또 한 번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번엔 부결되지 않고 재가결됐다. 충남도의회 정당별 의원은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은 2명으로 모두 48명이다.

다만 폐지안이 재가결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교

육감은 재가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충남 15개시군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15조(차별금지)를 관리는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다"며 "이것은 동 조항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함께 적용되면 동성혼 차별금지가 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36조는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조례가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권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 제16조(성인지 교육의 실시) 제2항은 '교직원은, 성관계 경험이 있



충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의견을 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며 "즉, 학생의 성관계를 학생인권으로 보장하는 조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16세 이하의 학생은 성인과 함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법률이 있는 나

라"고 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교사가 그러한 행위를 말리는 지도를 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지어 이 조례는 초등학생도 적용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김진영 기자

「서울-동탄 GTX-A 개통완료!」

동탄, GTX로 감탄하다!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오피스텔

GTX-A
개통완료
(수서-동탄 구간)

선남숲
영구조망
(일부호실 제외)

선착순 특별혜택

1833-3008

hillstate-le-centum.co.kr | KB부동산 | pine grove | 현대엔지니어링

건분주택 방문고객 사은품 증정

HILLSTATE